



2015년도 제3차 편집위원회

지난 6월 18일 롯데호텔에서 제3차 편집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 박형재 한국코카콜라 상무, 최호진 동아제약 상무, 배의찬 삼성 부장, 이한구 LG 부장, 채영훈 SK텔레콤 부장 등이 참석해 지난 호에 대한 리뷰 및 편집기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홍보위원회 개최

오는 8월 27일 FK타워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제2차 홍보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홍보위원회에서는 이의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홍보 담당 차관보를 초청, 인터넷언론 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네이버] 모바일 뉴스에 '기자 페이지' 서비스 개설



네이버는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이용자들이 특정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모아 볼 수 있는 '기자 페이지'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고 7월 14일 밝혔다. 모바일 네이버 뉴스의 개별 기사 본문 하단에 기자 이름과 '기사 더 보기' 버튼이 달린 막대가 새로 생겼다. 이를 누르면 해당 기자의 모든 기사가 최신 순으로 나열된다. 현재는 서비스에 동의한 언론사 소속 모든 기사의 기자 페이지가 생성되는 형태는 아니다. 2015년 7월 현재 네이버에 뉴스를 공급하는 언론사는 100여 곳에 이르는데, 이중 약 10% 가량이 이번 서비스에 참여했다. 현재 서비스가 적용된 언론사 가운데 이름 없는 기자 페이지를 개설한 곳은 없다. 네이버는 다른 언론사와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동반성장지수 두 단계 상승, '우수' 선정



대상주이 2014년 동반성장지수 조사에서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우수' 등급을 받으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동반성장

에 힘쓰는 모범기업으로 선정됐다. '우수' 등급은 식품 기업 가운데서는 최고 등급에 해당한다.

대상은 그 동안 '행복한 상생, 즐거운 내일'을 동반성장 슬로건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협력사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동반성장펀드, 상생파트너론 등을 마련, 맞춤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총 200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결재수단 및 대금 지급기일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차별적인 협력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해 위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고객만족경쟁을 위한 협력사와의 공동 CCM인증 지원, 식품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동 기술개발 활동을 펼쳐왔다. 공정한 성과공유를 위한 맞춤형 성과공유제 활동, 멘토링 제도,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협력사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동서식품] '맥심 T.O.P' 새 광고



대한민국 대표 커피전문기업 동서식품이 꿈을 위해 노력하는 열정의 의미를 담은 맥심 티오피(T.O.P) 신규 TV광고 '열정의 의미'편을 선보인다. 동서식품은 최근 보다 밝고 젊은 감성으로 맥심 T.O.P 전 제품의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초콜릿 모카 제품의 풍미를 개선해 맥심 T.O.P 만의 브랜드 정체성 및 제품력을 강화했다.

동서식품 김재환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맥심 T.O.P 광고를 통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자 했다"며 "더운 여름철에도 열정을 불태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맥심 T.O.P와 함께 각자의 꿈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